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진정성 개념의 속성과 변화 고찰

이수정 *

국립문화재연구소

투고일자 : 2012. 09. 29 · 심사일자 : 2012. 11. 01 · 게재확정일자 : 2012. 11. 14

국문초록

진정성은 문화재의 가치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방향과 원칙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국 문화재 중심으로 진정성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문화재의 가치평가에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논리적인 보존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연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진정성에 대한 연구논문은 보다 깊이있는 논의를 펼치기 위해 두 편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그 중에서 1단계 작업으로서 기존의 국제적 논의에 대한 분석과 진정성 개념이 지닌 문제점과 속성을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전반부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진정성에 대한 개념정립과정 과 진정성을 이해하는 관점의 변화과정을 검토하여 국제적으로 전개된 논의의 흐름과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진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적 측면과 진정성을 문화재 보존이라는 행위에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 하였다. 또한 진정성이라는 개념의 고유한 속성, 즉 시대에 따라 개념이 변화하거나, 문화별로 의미에 차이가 생기는 진정성의 개념적 유연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2단계가 되는 추가적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재에 적합한 진정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진정성을 문화재 보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는 보다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지정, 보존, 복원의 원칙을 세울 수 있는 철학적 토대와 실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진정성, 가치, 세계유산, 보존원칙, 보존정책

머리말

‘진정성’은 영어의 ‘authenticity’를 번역한 말이다. 원래 ‘진정성’이라는 용어는 우리말에 없었던 것인데,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authenticity’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이것이 중요해지면서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과정에서 번역을 위한 용어로 생겨난 말이다.

서양에서는 그 용어를 철학이나 예술 분야에서 먼저 사용해 왔고, 19세기가 되어서야 문화재 보존에 그 개념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현재, 세계유산의 등재 뿐만 아니라, 문화재의 가치를 평가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요소이다.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가장 첫 단계는 해당 문화재의 다양한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인데, 진정성은 문화재가 지닌 가치의 질과 양을 평가하는 잣대와 기준이며,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단서가 된다. 진정성은 신뢰할 만한 정보 그 자체로서 문화재가 지닌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는 진정성을 통해 검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화재의 총체적 가치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존관리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게 되므로, 가치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진정성이 중요한 사안인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진정성’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본래의 개념이나 국제적으로 논의된 개념에 대해 아직은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용어만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적 상황에, 그리고 한국문화재에 적합한 진정성 개념을 아직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진정성을 단순히 문화재의 ‘원래의 모습’ 또는 ‘가장 이른 시기의 모습’으로만 이해해 왔고, 주로 형태 등의 유형적 측면에 한정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진정성에 대한 체

계적인 개념정의와 논의가 없다는 것은 문화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 논리적 기준이나 잣대가 없다는 것이며, 그 결과 국내에서는 절대 연대나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시대적으로 선호하는 예술 사조 등 편협한 요소와 잣대만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 문화재의 가치를 총체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치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보존관리의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문화재에 적합한 진정성 개념을 정립하는 데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기존의 논의에 대해서 고찰하고, 이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진정성이 문화재 보존분야에 등장한 이후 개념의 발전과정에서 나온 논의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문화재 보존에서 나타나는 진정성의 속성과 개념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용어의 어원과 함께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념의 발달과정을 고찰하고, 개념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과 문제점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논의 대상은 유형문화재로 한정하였으며, 자연문화재와 무형문화재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⁰¹ 특히 진정성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속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건축문화재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자 한다.

진정성 : 용어의 어원과 개념⁰²

‘진정성(authenticity)’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의 ‘authentikòs’, 즉 ‘동일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⁰³ 진정성은 복제품의 반대어인 ‘원작’, 또는 위조품의 반대어인 ‘진품’ 등을 의미하는 말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

01 유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나 자연문화재와는 그 대상의 속성상 진정성의 개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유형문화재는 형태와 재료 등 시각적인 측면이 진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측면을 차지하는 반면, 무형문화재는 전승방식이나 정신적 의미 등이 중요한 측면이다. 또한 동·식물을 포함하는 자연문화재는 생물학적 특성이나 생태학적 속성 등 유형문화재와는 상이한 측면에서 진정성을 평가하고 개념이 정립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무형문화재와 자연문화재는 그 고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02 이 점에서 진정성의 어원과 의미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Jokilehto의 다음 논문에서 많은 부분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Jokilehto, J, 1995, 'Authenticity: a general framework for the concept', K Larsen(ed), *Nara Conference on Authenticity*, Unesco, pp.17~33.

03 Jokilehto, J의 앞의 논문 p.18.

하였다. 이는 라틴어인 'auctoritas', 즉 '영향력, 근원, 책임, 권력, 정권을 부여하다' 라는 의미를 지닌 용어와도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진정성이 있다(authentic)'는 말은 '법적 측면에서 위력 또는 효력이 있다' 또는 '사실에 부합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 외에도 '검증된 자료' 또는 '원본', '진본'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해 왔다. 또한 라틴어로 '동일하다'는 말은 'idem'이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정체성', 즉 '동일한 상태 또는 수준'을 의미하는 말로서 여기에서의 수준은 사람, 장소, 물건의 질적 수준을 의미한다. 또한 그 용어의 어원이나 연관되는 의미들을 볼 때, '진정성 있다(being authentic)'는 것은 '창의적이다, 독창적이다, 우수하다' 등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

중세에 들어서면, 그 개념이 발전하여, 성인의 유품을 옮길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교회당국의 '허가서(authentication)'에 그 의미를 연결시키기도 하고, 16세기에 셰익스피어는 '거짓이나 가식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였다.⁰⁴ 또한 데카르트, 로크, 헤르더, 괴테, 헤겔 등이 철학에서 그 용어와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진정성이 문화재나 예술품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도입된 계기 중 하나는 르네상스 시기에 증가한 역사와 유물에 대한 관심이었다. 고고학적 발굴이 크게 증가한 이 시기에는 출토 유물이 역사에 대한 물질적인 증거였다. 동시에 상류계층에게는 이러한 출토 유물을 소장하는 것은 그들의 부를 상징하고, 역사에 대한 지적 수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주는 수단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앞을 다투어 그 시기의 유물을 수집하고 저택에 공간을 별도로 두어 전시하였다. 그러나 출토유물에 비해 수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유사하게 모방한 조각상들이 늘어났고, 이들과 진품을 구분하기 위해서 감정가들이 등장하게 되고, 진정성 개념이 문화재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

양식적 복원이 크게 유행하던 18세기와 19세기에 진정성은 특정한 시기의 양식이나 이상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⁰⁵ 그 후 반복원운동(anti-restoration movement)에 힘입어 진정성은 특정 시기로 한정된 양식을 지칭하는 용어에서 시대별로 첨가된 모든 역사적 흔적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그 후, 진정성에 대한 개념이 문화재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즉 베니스 헌장(1964)이 나온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진정성 개념의 발전 과정

진정성 개념은 세계유산을 등재하는데 필수적인 조건(qualifying condition)이므로, 개념적 발전과정을 이해하려면, 베니스 헌장부터 그 이후에 등장하는 유네스코의 관련 헌장이나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지침서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베니스 헌장(1964),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등장한 세계유산 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침서, 나라문서(1994), 호이안 프로토콜(2005)을 통해 개념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베니스 헌장(1964)

19세기 말의 반복원 운동을 계기로 근대적 의미의 보존개념과 원칙을 정립한 서구유럽에서는 20세기에 들어 보존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진정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20세기 전반은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단순히 문화재에 담긴 역사적 흔적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단편적으로만 그 개념을 이해하였다.

진정성에 대한 개념이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문

⁰⁴ Jokilehto, J의 앞의 논문 p.19.

⁰⁵ 이 시기에는 'original' 혹은 'authentic'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현대적 의미의 보존이 시작되기 이전의 개념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상세하게 그 용어의 사용과 의미를 서술하지 않기로 한다.

화재 보존에서 그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이다. 이 시기에는 20세기 전반에 일어난 전쟁과정에서 소실된 문화재를 복원하는 공사가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복원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세워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던 시기였으므로, 베니스 헌장(Venice Charter)은 시의적절하게 진정성을 문화재 보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끌어들었다.

이 헌장의 서문에서는 ‘(문화재)의 진정성을 온전하게 후세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⁰⁶라고 하면서 물려주어야 할 대상이 문화재의 ‘진정성’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문화재의 물리적 측면을 보존한다는 전대의 생각에서 벗어나 물리적 측면 이상의 추상적, 관념적인 가치와 의미 등의 정신적 요소들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이 헌장의 제5항에서는 ‘(활용 또는 사용으로 인해) 건물의 배치(layout)나 장식(decoration)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⁰⁷고 하고, 제6항과 제7항에서 문화재 주변 환경(setting)의 보존을 강조하였다. 이는 후에 나라 문서에서 문화재 자체 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진정성의 다양한 측면 중 하나로 포함시키는데 개념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진정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베니스 헌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헌장이 19세기까지 고정되어 있던 생각, 즉 ‘양식적 통일을 염두에 둔 원형개념’에서 완전히 탈피하였다는 점이다. 베니스 헌장의 제11조에서는 기념물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모든 시대의 요소와 이로 인해 축적된 역사적 흔적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문화재의 진정성은 어느 특정시기에 고정된 절대불변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흔적 모두 진정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반복원 운동에서 제기된 진정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적 변화가 20세기 중반 이후 완전히 정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2.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지침서(1970년대~1980년대)

진정성에 대한 개념은 1970년대에 세계유산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되면서 그 개념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 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이 생겨났다.

1972년에 열린 유네스코 제7차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을 채택하고, 인류 역사상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세계유산을 등재하고 목록화 하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지침서(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는 1977년도에 처음 작성되었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진정성의 개념을 다양한 측면에서 세분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실무지침서 제9조에서는 ‘유적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디자인, 재료, 장인기술, 주변 환경에 있어서 진정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진정성은 본래의 형태와 구조에 대한 측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축적되어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후대의 변형 또는 첨가된 것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하였다.⁰⁸

그리고 총회에서는 진정성을 구성하는 4가지의 요소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는데, 그 중 한 예가 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논의이다. 일부 총회참석자들은 건축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진정성이 상실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건물의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본래 형태와 재료에 비가역적인 변화가 뒤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⁰⁶ 원문에서는 ‘It is our duty to hand them on in the full richness of their authenticity’라고 하였다. ICOMOS, 1964, *Venice Charter*, ICOMOS.

⁰⁷ 원문에서는 ‘...it must not change the lay-out or decoration of the building’이라고 하였다.

⁰⁸ 원문에서는 ‘the property should meet the test of authenticity in design, materials, workmanship and setting: authenticity does not limit consideration to original form and structure but includes all subsequent modifications and additions, over the course of time, which in themselves possess artistic and historical values.’라고 하였다.

주장하였다.⁰⁹ 실무지침서가 나온 이후, 세계유산 관련 회의나 각종 글에서 이 지침서에 명시된 진정성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들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정성의 개념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립되었다.

1980년에 개정된 실무지침서에서는 일정 조건 하에서 재건을 허용하면서 진정성에 대한 범위를 확장시키는 등 그 개념정의에 있어서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제18조 (b)항에서는 ‘세계유산위원회는 원형에 대한 완벽하고 상세한 기록에 근거하여 재건을 실행했을 때에만 이를 허용한다’라고 하면서 세계유산목록에 재건된 문화재도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그 결과, 전쟁으로 소실된 문화재를 복원한 경우도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게 되면서, 진정성에 대한 개념이 더욱 유연성을 지니게 되었으나, 오히려 이 때문에 진정성에 대한 개념이 한층 더 모호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1983년에 열린 세계유산회의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계유산을 등재하기 위한) 몇몇의 평가기준들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이는 특히 진정성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그렇다’고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진정성에 대한 개념과 그 적용방식에 있어서 회원국들의 이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 때문에 이후 각 국에서 제출하는 수많은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에 진정성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었거나 진정성을 가치와 동일한 개념으로 서술하였다. 심지어는 세계유산의 등재신청서를 검토하고, 등재여부에 대한 의견을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국제기념물유적협회(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줄여서 ICOMOS)조차도 1990년대까지도 그 보고서에 심사대상 문화재가 지닌 진정성을 네 가지 요소, 즉, 디자인, 재료, 주변경관, 장인기술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이 문화재는 명백히 진정성 있는...(undeniably authentic)’이라 하여 진정성의 유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¹¹

3. 나라 문서(1994)

진정성에 대한 논의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이루게 된 것은 1994년 일본 나라에서 열린 나라회의를 통해서이다. 이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담은 ‘진정성에 대한 나라문서(Nara Document on Authenticity)’는 서구 중심적 관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해체수리와 복원과 정에서 부재를 교체하는 관행을 역사적으로 반복해 온 목조 문화재 중심의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석조문화재 중심의 진정성 개념에 대해 반론의 제기하고, 이를 수정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한 것이 나라 문서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나라문서에서는 가치나 진정성에 대한 평가는 고정된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없으며, 문화재는 그들이 속해 있는 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서양의 진정성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차이점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진정성 개념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측면이 있다는 관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 결과, 나라문서에는 전대에 명시했던 진정성을 구성하는 요소에 추가적으로 정신적 측면들을 포함시켜 6가지의 요소, 즉 형태와 디자인(form and design), 재료와 물질(material and substance), 활용과 기능(use and function), 전통기법과 기술(tradition and techniques), 장소와 주변 환경(location and setting), 정신적 요소와 느낌(spirit and feeling)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나라 문서가 나온 이후, 실제로 세계유산을 등재하는 과정에서 진정성을 평가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 또는 활용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진정성을 형태적 측면에서 원형, 즉 가장 이른 시기의 모습으로 보는 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한 예가 1998년에 개정된 ‘유네

⁰⁹ Labadi, S, 2010, 'World Heritage, authenticity and post-authenticity: international and national perspectives' in C Long & S Labadi(eds), *Heritage and globalisation*, Routledge, p.67.

¹⁰ Von Droste, B and Bertilsson, U, 1995, 'Authenticity and World Heritage', K Larsen, *Proceedings of the Nara Conference on authenticity in relation to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Unesco, p.5.

¹¹ Stovel, H, 2007, 'Effective use of authenticity and integrity as World Heritage qualifying conditions', *City & Time* 2(3), p.22.

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지침서(Management Guidelines for World Cultural Heritage Sites)이다.¹² 이 지침서에는 진정성의 각 측면을 명시하는 데 있어서 나라 문서 보다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실무지침서에서 언급한 진정성의 4가지 측면만을 그대로 나열하였다.¹³ 나라 문서에서 언급한 진정성의 다양한 요소들은 2005년에 와서야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지침서에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나라 문서가 나온 이후에 일어난 변화 한 가지는 역사적 층위를 문화재의 일부로 보는 관점을 실무적 차원에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나라 헌장이 나오기 이전인 1980년대에만 해도 19세기에 양식적 복원으로 재탄생한 건축물은 역사성을 왜곡하고 진정성이 없는 건축물로 취급되어, 세계유산에 등재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나라 문서가 나온 이후에는 프랑스 건축가인 비올레 르 디크(Viollet-le-Duc)이 19세기에 고딕양식으로 복원한 까르까존(Carcassonne)과 같이 19세기에 양식적 통일을 위한 복원을 거친 문화재도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복원된 문화재에 대한 진정성이 인정되기 시작하였다.¹⁴

4.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지침서(2005)¹⁵

2005년에 개정된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지침서는 본격적으로 이전 지침서에는 없었던 ‘진정성(authenticity)’에 대한 조항들을 추가하여 제79항부터

제86항까지 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¹⁶ 이 지침서에서는 진정성은 세계유산목록에 문화재를 등재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며, 문화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정보원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진정성은 문화재가 속한 문화의 특수성에 따라 한 문화 내에서도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나라헌장의 주요 관점들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진정성에 대한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제79항에서는 문화재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면 기본적으로 진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¹⁷ 제80항에서는 문화재의 가치 평가가 어느 정도 가능한 지는, 그 해당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근거가 되는 자료가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지, 즉 진정성의 질적 수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때문에, 문화재에 현재 남아 있는 해당문화재의 최초의 모습과 그 이후의 변화된 흔적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진정성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았다.¹⁸ 나라문서의 관점이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은 제81항으로,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이를 평가하는 자료들의 신뢰성은 문화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동일한 문화 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문화재가 속한 문화의 특수한 맥락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¹⁹ 마지막으로, 제84항에서는 진정성은 문화재의 ‘예술적, 역사적, 사회적, 과학적 맥락’, 즉 중요성과 가치를 검토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정보이며, 이러한

¹² Fielden, B & Jokilehto, J, 1998, *Management guidelines for World Cultural Heritage Sites*, Unesco.

¹³ 이 지침서에서는 진정성의 요소를 디자인(design), 재료(materials), 장인기술(workmanship), 주변경관(setting)의 네 가지만 언급하였다. Fielden and Jokilehto, 1998, *Management guidelines for World Cultural Heritage Sites*, Unesco, p.17.

¹⁴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중세도시의 성곽지구인 까르까존은 1985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지 못했지만, 1997년에 등재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¹⁵ 이 문서는 <http://whc.unesco.org/archive/opguide05-en.pdf> 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 지침서가 최종적으로 개정된 것은 2012년이며, 개정 연도별 문서는 <http://whc.unesco.org/en/guidelines/> 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¹⁶ 다만, 진정성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나라헌장의 6가지 요소 외에 추가적으로 언어와 다른 형태의 무형적 유산(language, and other forms of intangible heritage) 과 그 외의 내외적 요인들(other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등 두 가지 요소를 추가하였다. World Heritage Centre, 2005,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HS, 제82항.

¹⁷ 원문에서는 ‘Properties nominated under criteria (i) to (vi) must meet the conditions of authenticity.’ 라고 하였다.

¹⁸ 원문에서는 ‘The ability to understand the value attributed to the heritage depends on the degree to which information sources about this value may be understood as credible or truthfu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se sources of information, in relation to original and subsequent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al heritage, and their meaning, are the requisite bases for assessing all aspects of authenticity.’ 라고 하였다.

¹⁹ 원문에서는 ‘Judgements about value attributed to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the credibility of related information sources, may differ from culture to culture, and even within the same culture. The respect due to all cultures requires that cultural heritage must be considered and judged primarily within the cultural contexts to which it belongs.’ 라고 하였다.

정보의 형태는 물리적 증거물, 구술자료, 각종 문서, 도면 자료 등 문화재의 특징, 속성, 의미,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다.²⁰ 그리고 이 지침서의 진정성에 대한 조항은 현재까지도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5. 호이안 프로토콜(2009)

1994년 나라문서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였지만 여전히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논의를 발전시키거나 아시아적 관점에서 개념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표 1 호이안 프로토콜에서 명시한 진정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

| 진정성의 다양한 측면(Dimensions of Authenticity) | |
|---|--|
| 위치와 세팅 Location and Setti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Place) 세팅(Setting) “장소가 주는 느낌(Sense of Place)” 환경적 감실(Environmental niches) 지형과 경치(Landforms and vistas) 주변 환경(Environs) 생물적 요소(Living elements) 주변지역에 대한 의존도(Degree of dependence on locale) |
| 형태와 디자인 Form and Desig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 배치(Spatial layout) 디자인(Design) 재료(Materials) 장인기술(Crafts) 축조기술(Building techniques) 공학적 요소(Engineering) 층위적 요소(Stratigraphy) 주변 문화재와 유적지와의 연관성(Linkages with other properties or sites) |
| 사용과 기능 Use and Func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Use) 사용자(User) 연대감(Associations) 사용에 따른 시간적 변화(Changes in use over time) 사용에 따른 공간적 배열(Spatial distribution of usage) 사용에 따른 영향(Impacts of use) 주변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사용(Use as a response to environment) 역사적 맥락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사용(Use as a response to historical context) |
| 비 물질적 속성 Immaterial Qualiti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적 표현(Artistic expression) 가치(Values) 정신(Spirit) 감정적인 영향(Emotional impact) 종교적 맥락(Religious context) 역사적 연대감(Historical associations) 소리, 냄새, 맛(Sounds, smells and tastes) 창의적 과정(Creative process) |

²⁰ 원문에서는 'The use of all these sources permits elaboration of the specific artistic, historic, social, and scientific dimensions of the cultural heritage being examined. "Informational sources" are defined as all physical, written, oral, and figurative sources, which make it possible to know the nature, specificities, meaning, and history of the cultural heritage.' 라고 하였다.

그 결과 진정성은 세계유산의 관리나 심사 등 국제적 사회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지 실제 자국 내에서 문화재를 보존하거나 관리하는데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었다. 여전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주로 서구적 관점에서 정립된 진정성에 대한 개념으로만 진정성을 이해하고 있어서 서구와는 다른 아시아의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진정성 개념을 적용하는데 재료적, 관습적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혔다. 호이안 프로토콜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적 지침서를 내놓기 위해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가 주축이 되어 2009년에 작성한 문서였다.

이 프로토콜은 기존의 논의에서 언급된 진정성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개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전의 요소들을 단순화시켜, 위치와 셋팅(location and setting), 형태와 디자인(form and design), 사용과 기능(use and function), 비물질적 특성(immaterial qualities)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표 1>에서와 같이 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여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프로토콜에서는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정보원에 대해서도 1차 정보원과 2차 정보원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¹ 예를 들어 역사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1차 자료는 장소(place), 통계자료나 지적도와 같은 1차 자료(primary documents: land deeds, census records), 비문(inscription), 족보 등 집안관련 자료(genealogies, ancestral records), 사진자료(historical photo), 고지도(historical maps) 등이 있으며, 2차 자료는 연표(chronologies), 여행일지(travellers' accounts), 역사와 평론(histories and commentaries), 일기와 서신(diaries, correspondence) 등이 있다고 나열하였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회적, 과학적, 예술적 문맥적, 추론적 측면

을 알 수 있는 1차 및 2차 사료에 해당하는 것들을 나열하였다.

또한 호이안 프로토콜은 후반부에 문화재를 총 5개의 부문, 즉, 고고학적 유적, 기념물과 건축물 및 기념물, 역사적 도시유적과 건물군, 문화적 조경, 수중문화재 등으로 나누어 진정성을 보존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아시아지역의 문화적·역사적 맥락에 적합한 진정성 개념을 실무적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전대에 나라헌장에서 확인한 진정성의 문화적 다양성을 아시아적 관점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의 호이안 역사도시에서 실질적으로 이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²² 이러한 실질적인 지침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에 한계가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문화재를 매개로 한 관광산업의 성장과 경제적 이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보존과 개발과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곳이다. 때문에 호이안 프로토콜과 같은 국제적 지침서나 헌장의 원칙들이 유효한 영향력을 가지려면 정부 차원에서 국제적 논의들을 자국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여 제도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진정성 개념정립의 문제점 분석

이번 장에서는 진정성의 현재적 개념이 지닌 문제점을 살펴보고, 진정성 개념을 정립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진정성의 기본적 속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가 하는 보존은 근대적인 산물로서, 보존이라는 사회적 행위는 기본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는 대상물을

21 호이안 프로토콜에서는 이를 1차적 정보원(primary source)과 2차적 정보원(secondary source)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 내용을 포함한 호이안 프로토콜의 전문은 유네스코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는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않았다. 호이안 프로토콜은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8/001826/182617e.pdf>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22 호이안 프로토콜의 기본적 원칙들은 지난 10여년 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호이안 역사도시에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호이안 프로토콜이 다른 세계유산에 흔히 발견되는 문제점들, 즉, 관광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막는 데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다. Chang, M, 2011, 'A review on the results of heritage preservation in Hoi An since the introduction of Hoi An Protocols', *World Heritage Forum Korea 2011*, ICOMOS Korea, pp.50~52.

그대로 '유지' 하고 '보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행위의 목적과 대상의 속성 간에 충돌하는 면이 존재한다. 때문에 보존에 있어서 대상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진정성 역시 이를 행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충돌하는 면이 다분히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까지는 아직도 개념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진정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시대적으로 개념을 다르게 정의해 왔고, 같은 시대라도 특정 문화 내에서 다른 의미를 지니기도 하는 유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성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그 문제점을 이해하고, 진정성이 지닌 속성, 즉 시대적 변화가능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국문화재에 적합한 진정성 개념을 세울 수 있고 이를 실무적 차원에서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1. 개념적 모순과 부조화

진정성은 현재에도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간에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매우 유동적인 개념이다. 때문에 어떤 학자는 진정성을 문화재 보존에서 필수적 개념으로 보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개념이 지닌 모순에 대해 지적하면서 회의론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즉, 세계유산을 등재하는 객관적 기준으로서 진정성을 가능한 한 보편타당한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하려는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²³ 진정성에 대한 판단 자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문화재의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러한 주관적 개념을 보존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²⁴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성의 개념을 단정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

운 일일 것이다. 다만 앞에 언급한 세계유산의 등재에 필요한 요소로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통해 진정성의 현재적 의미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들을 추출해낼 수 있다. 이와 함께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의 진정성의 역할과 그것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진정성이 지닌 속성과 문제점은 한국문화재의 진정성 개념을 정의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로서, 외래적 개념을 보다 국내 상황에 적합한 개념으로 발전시키는데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필수적 정보이다.

먼저 진정성은 일반적으로 문화재에 내재된 '진실된(true)', '실존하는(real)', '신뢰할 만한(trustworthy)' 속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속성은 해당 문화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속성이다. 때문에 진정성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지닌다. 첫 번째로, 진정성은 문화재의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에 믿을만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는 유·무형적 형태가 될 수 있다. 해당 문화재에 이러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이 현재 남아 있고, 그러한 정보들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문화재의 진정성은 그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 평가에서 믿을 만한 기준이 된다. 진정성의 각 요소들은 문화재의 개별적 또는 총체적 가치의 양적 또는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되므로, 진정성은 문화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이다.²⁵

두 번째로, 진정성은 문화재의 진실된 속성이기 때문에, 보존에 있어서 하나의 목표점이자 교과서이다. 즉, 진정성을 왜곡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해야만 해당 문화재의 가치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으므로, 보존과 관리 과정에서 보존을 위한 선택이나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진정성을 밝혀내고, 이를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해

23 Jokilehto, J, 1995a, 'Authenticity: a general framework for the concept', K Larsen(ed) *Nara Conference on Authenticity*, Unesco, pp.17~34.

Stovel, H, 2007, 'Effective use of authenticity and integrity as world heritage qualifying conditions', *City & Time* 2(3), pp.21~36.

24 Lowenthal, D, 1999 'Authenticity: rock of faith or quicksand quagmire?' *GCI Newsletter* 14(3), http://www.getty.edu/conservation/publications_resources/newsletters/14_3/feature1_2.html, Muñoz Viñas, S, 2009, 'Beyond Authenticity' in E Hermens & T Fiske, *Art conservation and authenticities: material, concept, context*, Archetype Publications Ltd, pp.33~38.

25 문화재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정성 외에도 문화재의 절대 연대, 희귀성, 한 시대와 문화의 성향이나 가치관, 정치적 상황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서, 보존의 방향과 목표를 결정하는 데에 늘 참고해야 할 교과서와 같은 존재이자,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다. 그런데 진정성은 개념 자체가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행위의 기본적 속성과 모순되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진정성을 설명하는 ‘진정한, 진실된 (real, 실존적)’이라는 속성은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실존적이라는 말은 현재 존재하는 그 모습 그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문화재에 이미 일어난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그 실존을 이해할 수 있다. 일단 문화재를 특정 모습으로 유지시키거나 되돌리고자 하는 행위는 문화재의 변화하는 속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즉, 진정성을 유지하려는 명목으로 실존적, 즉 진정한 모습을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더 이상 문화재가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그리고 그를 통해 진정성을 유지하려는 행위는 ‘진정한’, ‘실제의’ 모습이 아닌 ‘선호하는’, ‘진정하다고 믿는’ 모습을 지키는 행위인 것이다.²⁶

진정성이 지닌 문제점 중 하나는 문화재의 진정성이 매우 주관적인 관점에서 정의되고 판단되기 때문에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진정성의 유·무형적인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과학적인 수치로 환산하거나 검증할 수 없으며, 정의하는 사람의 주관적 생각과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석굴암이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석굴암의 보존을 위해 한 모든 역사적 행위들에 있어서 핵심적 논란이 되어온 것은 석굴암의 ‘원형’이었다. 그리고 전실의 목조구조나, 전실의 가장 입구 쪽에 있는 두 구의 팔부중의 위치에 대한, 그리고 본존불이 봉안된 공간의 광창의 유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늘 학자나 전문가들에게 원형은 주관적인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원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보존공사가 이루어질 때

마다 조금씩 변형되어 지금 우리가 보는 석굴암이 오히려 원형에서 더욱 멀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하는 것이다.

진정성이 지닌 속성 중에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진정성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에 서로 상충하는 면이 있고, 나아가서는 가치들 간에 서로 충돌하도록 만드는 속성이 있다. 진정성의 한 요소를 유지하려면 다른 한 요소를 왜곡하거나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의 경우, 기능의 진정성을 지키려면 해당 문화재를 끊임없이 수리하고, 현대적인 사용목적에 맞게 형태를 변화시켜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형태의 진정성이나 재료의 진정성을 일부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 경우에 기능의 진정성은 문화재의 정서적 가치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요소이지만, 예술적 가치나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는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로 인해, 한 문화재의 각 요소별 진정성을 모두 보존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과연 진정성이 문화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는 진정성의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충족시키기 보다는 선택적으로 진정성의 요소들을 선별하여 가치평가에 활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 역시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치 진정성이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문화재의 속성인 듯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그 기준이 되는 요소와 개념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²⁷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진정성은 어떤 측면에서 가변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시간적, 공간적 차원에서 진정성 개념이 지니고 있는 유동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²⁶ Muñoz Viñas, S, 2005, *Contemporary theory of conservation*, Elsevier Butterworth-Heinemann, p.97. Muñoz Viñas, S, 2009, 'Beyond Authenticity' in E Hermens & T Fiske, *Art conservation and authenticities: material, concept, context*, Archetype Publications Ltd, p.35.

²⁷ Lowenthal, D, 1999, 'Authenticity: rock of faith or quicksand quagmire?' *GCI Newsletter* 14(3),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p.1.

2. 진정성 개념의 유동성 : 시대에 따른 변화와 문화적 다양성

먼저 한 문화재의 진정성은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전혀 달라지게 된다. 이는 앞에서 '실존적'인 속성을 설명할 때 잠시 언급한 것과 연결하여 보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우선, 그 기준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문화재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 두 번째는 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시기, 세 번째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의 인식 속에 존재하는 또는 선호하는 시기로 나눌 수 있다.²⁸ 지난 19세기부터 현재까지 형태의 진정성은 문화재가 첫 번째나 세 번째의 관점에서 이해하던 방식에서 두 번째 방식, 즉 세월의 흔적을 모두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세월의 흔적을 존중하는 것은 바로 문화재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대상 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문화재의 '실존적' 모습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성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속성을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세월의 흔적을 존중하는 관점이 이미 베니스 헌장 이후로 일반화 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원형을 가장 이른 시기의 모습 또는 지금 있는 자료와 정보로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시점의 모습으로 인식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화재의 실존적, 진실된 모습의 기준시점은 늘 옛날에 머물러 있다. 때문에 형태의 진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정에 근거한 복원을 감행하게 되고,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보다 현실적이고 진정성의 속성을 반영하는 개념이 되려면 우선 원형의 개념을 상징하는 시점을 제작시점부터 현재까지로 잡고, 이 기간 동안에 쌓인 역사적인 흔적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

일제강점기에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원형'은 진정성

중에서도 형태의 진정성을 의미한다. 조선총독부가 해체 수리한 석굴암을 여행하고 1921년에 쓴 권덕규의 글에서는 '원형'을 석굴암의 '가장 이른 시기의 모습과 형태'로 이해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는 석굴암 보수공사에서 시멘트를 사용한 것을 비판하면서, '근본적으로 원형대로 보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하였다.²⁹ 그러한 원형을 고정된 시기, 즉 가장 이른 시기로 보는 관점은 1970년대의 봉정사 극락전 해체수리공사나 불국사 복원공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방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그러다 보니, 봉정사 극락전에 남아 있던 조선시대 양식의 각종 부재들을 없애면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일부 손상시켰으며, 현대식 법회와 의식에 적합하지 않은 고려시대의 내부 양식으로 복원하면서 기능의 진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내부 바닥을 마루가 아닌 고려시대의 전돌 형식으로 변형하여, 현재의 불교 예배에 적합하지 않은 사용 목적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형을 특정 시점으로 정하여 보존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흔적을 모두 없앨 경우, 오히려 진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진정성에 대한 개념은 해당 문화재를 창작하고, 보존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속한 문화와 사회적 인식,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먼저, 진정성을 대표하는 '진실된' 또는 '원본의', '실존의' 등의 개념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서양에서는 'authentic'에 대한 반대말로 'fake'나 'copy' 등을 흔히 사용하는데, 우리는 원본과 복제품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르다. 한자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전대의 작품을 보고 '임(臨)·보(模)·방(倣)'하는 것을 장려하였고, 그것 자체로서 진정성 있는 예술작품으로 오래 전부터 인정해 왔다. 이는 작품을 모방하는 태도에서 동서양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서양에서의 모방의 의미는 예술작품에 나타난 시각적인 형태만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지만, 동양에서는 그 과정에서 작가의 고매한 인품이나 정신세

²⁸ Fielden, B & Jokilehto, J, 1998, *Management guidelines for World Cultural Heritage Sites*, Unesco, p.16.

²⁹ 권덕규, 1921, 「慶州行」 『개벽』 18, p.72.

계를 본받아 이를 작품에 반영하고자 했기 때문에 형태가 바뀌어도 그 정신세계를 그대로 표현한 것은 그 자체로서 진정성 있는 예술작품이라고 보았다.

또한 석조문화재가 지배적인 서양에서의 재료의 진정성은 문화재의 창작당시에 사용한 그 부재의 보존을 중시한다. 반면에 보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재를 교체해야 하는 목조문화재에서는 재료의 진정성은 동일한 재질을 의미하며, 재료보다는 장인기술이나 제작기법의 진정성이 해당 문화재의 진정성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문화재 보존의 진정성 개념 정립의 과제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진정성에 대한 개념정의는 지난 반세기동안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시도되어 왔지만 여전히 모호한 개념이며, 그에 대한 이해 역시 국가별로 지역별로 다르다.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기에 이를 세계유산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별로 개념 인식에 있어 차이가 존재했고, 그 지침 역시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왔다. 또한 진정성은 시대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문화재가 속한 문화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문화재에 적합한 진정성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

서 이러한 속성들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진정성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재의 가치를 평가하고 검증하며, 보존의 방향과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아 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진정성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구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본 논문에서 고찰한 진정성 개념의 발전과정과 개념 자체의 속성, 그리고 개념정립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분석한 것은 1단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이어 2단계로서 연구해야 할 것은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이해하고 있는 진정성의 개념이 무엇이고, 근대적 의미의 보존이 시작된 이래 보존에 있어서 진정성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문화재에 적합한 진정성의 개념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한국문화재 보존사에서 진정성 개념과 연관된 주요 보존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정성 개념이 국내에서 정립, 발전되는 과정을 분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고찰한 사항들을 토대로 기존 논의에서 한 단계 발전적으로 나아가, 한국문화재에 적합한 진정성 개념을 형태, 기능, 재료, 장인기술 등으로 나누어 요소별로 세분화된 관점에서 다각도로 그 개념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진정성을 실무적으로 유용한 개념으로 전환시키고, 실제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방안들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권덕규, 1921, 「慶州行」 『개벽』 18
- Fielden, B & Jokilehto, J, 1998, *Management guidelines for World Cultural Heritage Sites*, Unesco
- ICOMOS, 1964, *Venice Charter*, Paris: ICOMOS. www.icomos.org/charters/venice_e.pdf
- Jokilehto, J, 1995a, 'Authenticity: a general framework for the concept', K Larsen(ed) *Nara Conference on Authenticity*, Unesco, pp.17~34.
- Jokilehto, J, 1995b, 'Viewpoints: the debate on authenticity', *ICCROM Newsletter* 21, pp.6~8.
- Labadi, S, 2010, 'World Heritage, authenticity and post-authenticity: international and national perspectives' in C Long & S Labadi(eds), *Heritage and globalisation*, Routledge, pp.66~84.
- Lowenthal, D, 1999, 'Authenticity: rock of faith or quicksand quagmire?' *GCI Newsletter* 14(3).
http://www.getty.edu/conservation/publications_resources/newsletters/14_3/feature1_2.html
- Muñoz Viñas, S, 2005, *Contemporary theory of conservation*, Elsevier Butterworth-Heinemann
- Muñoz Viñas, S, 2009, 'Beyond Authenticity' in E Hermens & T Fiske, *Art conservation and authenticities: material, concept, context*, Archetype Publications Ltd. pp.33~38.
- Stovel, H, 2007, 'Effective use of authenticity and integrity as world heritage qualifying conditions', *City & Time* 2(3), pp.21~36.
- Unesco, 2009, *Hoi An Protocols : for best conservation practice in Asia, professional guidelines for assuring and preserving the authenticity of heritage sites in the context of the cultures of Asia*, Unesco Bangkok.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8/001826/182617e.pdf>
- von Droste, B & Bertilsson, U, 1995, 'Authenticity and World Heritage' in K Larsen, *Proceedings of the Nara Conference on authenticity in relation to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Unesco, pp.3~16.
- World Heritage Centre, 2005,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HS. <http://whc.unesco.org/archive/opguide05-en.pdf>

Analytical Study on the Definition and Nature of Authenticity in Heritage Conservation

Lee, Su Jeong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Received : 2012. 09. 29 · Revised : 2012. 11. 01 · Accepted : 2012. 11. 14

ABSTRACT

Authenticit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condition which should be examined in setting ou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rinciples of cultural heritage during the last half century. Compared that the concept has been internationally discussed developing it into the applicable framework such kind of effort has been relatively low within Asian context.

This paper is the first half part the research on authenticity which aims at setting out conceptual framework of authenticity in Korean context and presenting a set of suggestion to make the Korean heritage-based concept of authenticity be workable in assessing heritage value in practice. It focused on the analytical review on two aspects: 1, the origin of the word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World Heritage Convention, nt of related international charters; 2, Problems of the intrinsic nature of the concept and problems to be considered in defining the concept.

Key Words *Authenticity, Value, World Heritage, Conservation Principle, Conservation Policy*